

아시아교육연구 20권 2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2, pp. 349-376.

<https://doi.org/10.15753/aje.2019.06.20.2.349>

중국과 한국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Wu Linyan(吳琳焯)**

오인수(吳仁秀)***

Li Mingji(李明姬)****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중국 초등학생 399명과 한국 초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학생-교사의 관계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과 한국 간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학생-교사의 관계 및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민주적 양육방식,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학생-교사 관계는 중국이 한국보다 높았고 허용적 양육방식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았다. 둘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학생-교사 관계가 유의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생-교사 관계는 증가된 스트레스로 인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학생의 관계적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상담 방법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주요어 : 중국, 한국, 부모 양육방식, 스트레스, 학생-교사 관계, 주관적 안녕감

* 이 논문은 Wu Linyan(2018)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3A2075274).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1. 서론

한국과 중국은 같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 속하지만 국가 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문화, 정치, 경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외에도 교육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중국은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을 가지게 되었고 자녀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자녀출산에 대한 제한이 없어 대부분 가정에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의 수는 감소하고 있어 한국 역시 교육열이 높은 추세이다(심정희, 2015). 또한 한국 초등학교의 경우 학업평가 방식에서 일제고사가 폐지되고 절대평가 방식이 일반화되어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적은 반면, 중국 초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시험제도를 실시하는 교육정책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모두 학업을 중시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경쟁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두 나라의 교육과 문화 중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그리고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학생-교사의 관계이다.

2012년 제66차 유엔(UN) 총회는 인류가 21세기에 직면한 최대의 생존 도전은 오염, 전쟁, 그리고 전염병이 아니라 행복감이 낮은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UN) 총회는 매년 3월 20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정하기로 하였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전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유엔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후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특히 학업적 스트레스가 높은 한국과 중국과 같은 동북 아시아 학생들의 행복감에 주목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김의연, 박영신, 김의철, 2013; 김의연, 유효숙, 2018; Houri, Nam, Choe, Min & Matsumoto, 2012). 행복은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변인을 통해 연구되었는데 행복한 사람은 평소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며 부정적 정서를 적게 느끼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본다(서은국, 구재선, 2011).

실제로 2007년 중국 북경대학교 아동청소년 연구소에서 발표한 ‘학생 자살 현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약 1.5만 명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6.5%였다(邱雯婷, 冯维, 2009). 한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의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6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22개국 중에 가운데 가장 낮았다(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6). 이에 따라 중국, 한국 모두 청소년의 행복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주관적 안녕감, 즉 행복감은 청소년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긍정적 정서 요인이다. 행복감이 높은 아동은 학교과제수행 정도가 높고(Hoggard, 2005)

포래관계도 좋다는 결과가 있다(김영은, 2009). 반면 낮은 행복감은 청소년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 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또한 낮은 행복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수미, 2011; 허지영, 2008). 특히 초등학생의 행복감은 자아존중감과 중요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은, 2009). 또한 행복감은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인 자아효능감과 내적통제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신원, 2007; 허지영, 2008).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행복감, 즉 주관적 안녕감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우 가정, 학교, 사회 등 외부적 요인과 심리, 성격 등 내부적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송영이, 2011). 초등학생은 청소년과 성인과 비교하여 환경에 보다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둘러싼 가정환경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박영숙, 김종우, 이상원, 2010; 심향순, 여상인, 2004). 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가 앞으로 어떤 성격을 형성하는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옥, 김재호, 2018; 함미영, 김희영, 전미순, 2007).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보고서(2016)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정 경제 수준이 좋더라도 어머니와 관계가 나쁘면 청소년 중 49%만 행복하다고 답했지만, 관계가 좋으면 81%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행복의 조건으로 돈(4%)보다 화목한 가정(37%)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행복감이 부모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부모 요인이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을 다양하게 확인하였다(김복인, 이인수, 2013; 김수희, 이수, 2018; 서종수, 2017; 郭明佳, 刘儒德, 甄瑞, 牟晓红, 庄鸿娟, 2017; 胡洁, 姬天舒, 冯凤莲, 2002). 김복인과 이인수(2013)는 부모의 공감이 자녀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서종수(2017)는 부모애착이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수희와 이숙(2018)은 부모관심도와 부모돌봄인식이 자녀의 행복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郭明佳 외(2017)는 부모애착과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이해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자녀가 가정을 떠난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胡洁, 姬天舒, 冯凤莲, 2002).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은진(2011)은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이 부모의 돌봄을 높게 지각하고 어머니의 과보호는 낮게 지각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원정, 2009; 김영선, 이숙, 2014). 또한 신명덕(2007)은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강광연과 전제상(2018)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주양육자의 양육태도가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양육방식 자체가 직접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양육방식이 자녀의 개인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주어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김정민, 이유리, 2010; 정은선, 조한익, 2009; 지선례, 2018). 정은선과 조한익(2009)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사이에서 강인성이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김정민과 이유리(2010)는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지선례(2018)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이 양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매개변인 중에서 본 연구자가 주목한 변인은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이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며(김남정, 임영식, 2012; 김연화, 2010; 신성철, 신연희, 송희원, 2018; 임세준, 이운영, 2018; 傅俏俏, 叶宝娟 & 温忠麟, 2012; 曾岑莉, 2016; 任木千子, 2016), 이러한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된다는 연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신현균, 2009; 유양, 박인숙, 2010;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廖红, 2015; 张筱好, 2015).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이들의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김연화, 2010; 심우엽, 2013; 심우엽, 2014; ; 傅俏俏, 叶宝娟 & 温忠麟, 2012; 钟茜莎, 2016). 특히 본 연구에서의 설문자료를 수집한 중국 선전시의 경우에도 罗桃兰(2005)의 연구에 따르면, 선전시 초등학생은 ‘파괴적 성향, 충동적 성향, 과민 성향, 사람들에 대한 초조’의 네 가지 영역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학업불안, 자기 비난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간의 관련성 및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통해서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정신건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초등학생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엄격하고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가 잘못했을 때 처벌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廖红, 2015). 한국의 연구 결과도 중국과 비슷하였으며, 부모-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우울 및 자살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근영, 최수찬, 공정석, 2011; 최인재, 2010).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

이어서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행복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연화, 2010; 심우엽, 2013; 심우엽, 2014 傅俏俏

俏, 叶宝娟 & 温忠麟, 2012; 钟茜莎, 2016). 김연화(2010)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심우엽(2013)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심우엽, 2014). 傅俏俏 외(2012)는 스트레스성 생활사건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학업적인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钟茜莎, 2016). 이러한 영향관계를 참조하여,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매개한다는 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부적 변인이 조절작용을 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정서지능, 탄력성, 사회적지지, 자기자비와 같은 변인들이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현주, 최형아, 2017; 조혜정, 2013; 尚晶晶, 2017; 姜晓文, 姜媛, 田丽, & 方平, 2018). 청소년은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교사와 또래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결과가 있다(김요셉, 김성천 & 유서구, 2011). 교사는 부모 외에 청소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자로 간주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Hamre, Pianta, 2001; Howes, Hamilton & Matheson, 1994; Pianta, Nimetz & Bennett, 1997)에서 학생-교사관계는 초등학생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생-교사 관계는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남희, 김종백, 2011). 따라서 학생-교사 관계가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학생-교사 관계 및 주관적 안녕감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부모의 양육방식이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은 부모 및 교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고 생소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쉽게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는 자녀의 매우 중요한 후원자가 된다. 또한 최근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조차도 높은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모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 및 학생-교사의 관계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교사 관계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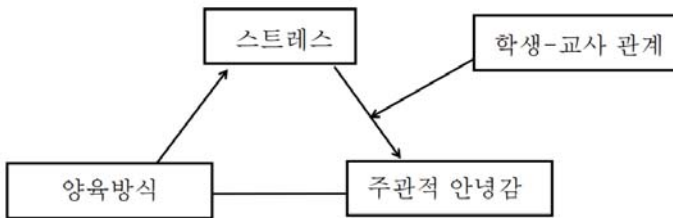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학생-교사의 관계 및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연구변인이 중국과 한국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이러한 변인의 관계들이 두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

지만 국가 간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 교육제도, 생활양식을 갖고 있어 일부 연구자들은 두 국가 사이의 심리적 변인의 차이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두 국가 사이에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Lai et al., 2015; Lee, Yi, Walker & Spence, 2017)과 스트레스(Kim, Won, Liu, Liu & Kitanishi, 1997; Wei, Ku, Russel, Mallinckrodt & Liao, 2008)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두 국가의 학생들 사이에 이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교사-학생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두 국가는 자녀수 제한 등에 있어서 제도적 차이를 보여 이러한 차이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가방식과 같은 교육제도에서의 차이 역시 부모의 양육방식과 맞물려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두 국가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등(김은주, 2018) 교사-학생 간 관계가 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한 변인의 관계가 두 국가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서 진술된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의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및 학생-교사의 관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의 부모 양육방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차이가 있는가?



[그림 1] 부모의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을 사용하여 중국 선전시에는 있는 5학년과 6학년 초등학생과 한국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5학년과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현재 중국에서 신속하게 성장발전하고 있는 선전시를 선택하여 설문을 진행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5학년은 52.9%, 6학년은 47.1%이고 남학생은 48.9%, 여학생은 51.1%이다. 한국의 경우, 5학년과 6학년 학생이 각각 50%이고 남학생은 49.8%, 여학생은 50.2%를 차지하였다. 중국 선전시 4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협조아래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컴퓨터실에서 학생을 지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를 통하여 설문을 진행하였고 수집된 420개 자료 중에서 무작위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99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 경기도 지역 3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협조아래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고 수집된 408부의 자료 중에서 무작위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 400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4개의 척도를 사용하여 심리적 변인을 측정하였다. 4가지의 주요변인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의 경우 한국과 중국에서 교차 타당화를 거친 검사도구가 존재하지 않아 중국에서 사용할 설문지의 경우 한국어 척도를 모두 중국어로 번안한 후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교육심리·상담 전공 이중언어 박사학위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중국 초등학교 10명에게 모의 설문을 실시한 후 문항의 난이도를 확인하였고 혼동의 여지가 있는 문항의 경우 재수정하였다.

1) 주관적 안녕감 척도

초등학교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를 초등학교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이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삶의 만족감, 긍정 및 부정 정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으며,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삶의 만족감 척도들은 3문항으로 ‘개인적’(성취, 성격 등), ‘관계적’(가족, 친구 등), ‘집단적’(학교, 학원, 동아리 등) 측면에서의 만족감을 측정한다. 나머지 6개 문항은 긍정적 정서 3문항과 부정적 정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예, 성취, 성격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삶의 만족감), “즐거움”(긍정적 정서), “짜증나는”(부정적 정서) 등의 문항이 있다. Likert 척도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주관적 안녕감의 총점은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의 합에서 부정적 정서의 점수를 빼서 산출하였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그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관적 안녕감의 신뢰도는 .875 이었다.

2) 부모의 양육방식 척도

부모의 양육방식은 Buri(1991)가 개발한 부모양육태도 척도(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 PA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이현주, 강민희(2008)가 한국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양상을 보기 위해서 Buri의 척도를 청소년용으로 변안 및 타당화한 척도이다. Buri가 개발한 척도는 Baumrind(1967)의 부모양육태도 이론을 토대로 부모의 양육방식을 3가지 하위유형, 즉 '민주적(authoritative) 양육태도', '허용적(permissive) 양육태도',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내가 가족 내의 규칙과 규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대화로 풀어 가려고 하신다.”(민주적 양육태도),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가 내 의견이 당신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허용적 양육태도) 등이다. 3개 하위척도가 각 10문항씩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민주적 양육태도의 경우 .843이고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717이고 허용적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761이었다.

3)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미현과 유안진(1995)이 개발한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학업영역, 친구영역, 교사학교영역, 주변환경 영역 6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피로도를 줄이고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방식 및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교사학교영역과 주변환경 영역에 속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에 대해 모두 29개 문항으로 본 연구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엄마나 아빠가 내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 해주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부모영역),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정환경영역),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친구영역), “시험을 잘 못 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학업영역) 등 문항들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9이었다.

4) 학생-교사 관계 척도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생-교사 관계가 어떤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종백과 김남희(2009)가 개발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Kennedy(2004)의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을 토대로 하여 수업을 포함한 교육적인 상황에서 학생-교사 간의 관계를 평가

하는 도구이다. 이 척도는 신뢰성, 수용성, 민감성, 접근 가능성의 4개 하위영역을 포함하며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신뢰성),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해주신다.”(수용성),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신다.”(민감성),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주신다.”(접근 가능성) 등 문항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교사를 신뢰로운 존재로 인식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수용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다가가기 쉬운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Cronbach's α)는 .875이었고 하위영역인 신뢰성은 .758, 수용성은 .713, 민감성은 .666, 접근 가능성은 .580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1.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의 내적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전체 변인의 기술통계와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의 부모 양육방식,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학생-교사 관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넷째,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Hayes(2017)의 PROCESS model 14를 적용하여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의 학생-교사 관계가 부모 양육방식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즉 조절된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는 아래의 <표 1>에 제시하였고 같은 표에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아래 <표 1>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과 민주적 양육($r=.412, p<.01$), 허용적 양육($r=.230, p<.01$)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주관적 안녕감과 권위주의적 양육($r=-.179, p<.01$)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주관적 안녕감과 스트레스($r=-.327, p<.01$)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각 양육방식의 관계를 보면, 민주적 양육방식($r=-.210, p<.01$), 허용적 양육방식($r=-.197, p<.01$)과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r=.201, p<.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가 학생-교사 관계($r=-.135, p<.01$)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주관적 안녕감과 학생-교사 관계

($r=.405, p<.01$)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

	주관적 안녕감	민주적 양육	권위주의적 양육	허용적 양육	스트레스	학생-교사 관계
주관적 안녕감	1	.412**	-.179**	.230**	-.327**	.405**
민주적 양육	.318**	1	-.050	.591**	-.210**	.473**
권위주의적 양육	-.280**	-.120*	1	-.022	.201**	-.025
허용적 양육	.199**	.642**	-.100*	1	-.197**	.271**
스트레스	-.583**	-.346**	.455**	-.285**	1	-.135**
학생-교사관계	.381**	.330**	-.026	.196**	-.180**	1
평균(중국/한국)	18.65/18.63	37.47/36.38	29.60/23.84	30.29/31.43	70.16/44.42	46.13/41.58
표준편차(중국/한국)	6.56/6.31	7.63/6.88	6.74/6.56	6.98/5.69	20.32/13.46	6.96/7.13

* 우측상단은 중국, 좌측하단은 한국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보여줌. * $p<.05$, ** $p<.01$

한국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은 민주적 양육($r=.318, p<.01$), 허용적 양육($r=.199, p<.01$), 학생-교사관계($r=.381, p<.01$)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권위주의적 양육($r=-.280, p<.01$)과 스트레스와($r=-.583, p<.01$)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민주적 양육은 권위주의적 양육($r=-.120, p<.05$)과 스트레스와($r=-.346, p<.01$)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허용적 양육($r=.642, p<.01$)과 학생-교사관계($r=.330, p<.0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권위주의적 양육은 허용적 양육과 유의한 부적상관($r=-.100, p<.05$)을 보였고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정적상관($r=.455, p<.01$)을 보였다. 허용적 양육은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상관($r=-.285, p<.01$)을 보였고 학생-교사관계($r=.196, p<.0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는 학생-교사관계($r=-.180, p<.0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2. 중국과 한국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학생-교사 관계의 차이

중국과 한국의 각 측정변인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양육방식,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중국과 한국에서 주관적 안녕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양육방식($t=2.128$,

$p < .05$), 권위주의적 양육방식($t=12.257, p < .001$), 스트레스($t=21.109, p < .001$), 학생-교사관계($t=9.128, p < .001$)는 중국이 한국보다 높았다. 허용적 양육방식($t=-2.545, p < .05$)은 중국이 한국보다 낮았다. 주관적 안녕감은 중국과 한국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 학년의 경우($t=-.814$)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성별의 경우($t=.248$)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국적에 따른 각 측정변인의 차이

	중국		한국		<i>t</i>	<i>Cohen's d</i>
	M	SD	M	SD		
민주적 양육방식	37.47	7.63	36.38	6.88	2.12*	.15*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29.60	6.74	23.84	6.56	12.25***	.86***
허용적 양육방식	30.29	6.98	31.43	5.69	-2.54*	.18*
스트레스	70.16	20.32	44.42	13.46	21.10***	1.49***
주관적 안녕감	18.65	6.56	18.63	6.31	.04	.01
학생-교사관계	46.13	6.96	41.58	7.13	9.128**	.64**

* $p < .05$, ** $p < .01$, *** $p < .001$

3. 중국과 한국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고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세 유형이 포함되어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각각의 유형이 해당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3〉, 〈표 4〉,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 첫째, 먼저 독립변인인 민주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93, t=-4.277, p < .001$). 다음으로는 독립변인인 민주적 양육방식이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36, t=5.052, p < .001$). 조절변인인 학생-교사관계가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71, t=5.247, p < .001$).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209, t=2.492, p < .05$). 이는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B=-.263, t=5.801, p < .001$)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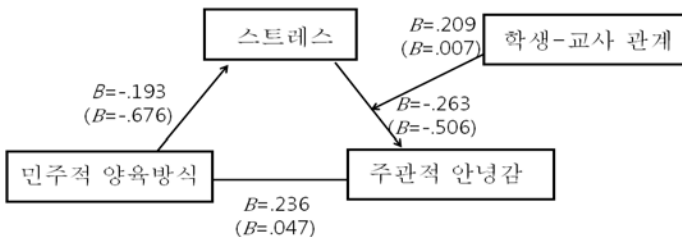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첫째, 먼저 독립변인인 민주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676, t=-7.348, p<.001$). 다음으로는 독립변인인 민주적 양육방식이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007, t=2.608, p<.01$). 이는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B=-.506, t=4.912, p<.001$)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 효과는 차이가 있었다.

〈표 3〉 중국과 한국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인	중국			한국		
	B	SE	t	B	SE	t
종속변인 = 스트레스						
민주적 양육방식	-.193	.045	-4.277***	-.676	.092	-7.348***
R2/ F(p)	.044/ 18.291***			.120/ 53.991***		
종속변인 = 주관적 안녕감						
변인	β	SE	t	β	SE	t
민주적 양육방식	.236	.047	5.052***	.047	.039	2.222
스트레스(A)	-.263	.045	-5.801***	-.506	.103	-4.912***
학생-교사관계(B)	.371	.071	5.247***	-.037	.112	-.332
상호효과(A×B)	.209	.084	2.492*	.007	.003	2.608**
R2 /F(p)	.293/ 40.851***			.430/ 74.551***		

* $p<.05$, ** $p<.01$, *** $p<.001$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괄호밖에 제시된 숫자는 중국, 괄호 안에 제시된 숫자가 한국을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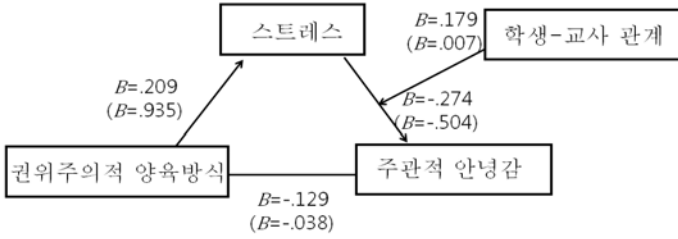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 첫째, 먼저 독립변인인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09, t=4.091, p<.001$). 다음으로는 독립변인인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29, t=-2.694, p<.001$). 또한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536, t=8.359, p<.001$). 또한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179, t=2.092, p<.05$). 이는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B=-.274, t=-5.871, p<.001$)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중국과 한국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인	중국			한국		
	종속변인 = 스트레스					
	B	SE	t	B	SE	t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209	.051	4.091***	.935	.092	10.205***
R2/ F(p)	.041/ 16.737***			.207/ 104.149***		
변인	종속변인 = 주관적 안녕감					
	B	SE	t	B	SE	t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129	.048	-2.694***	-.038	.041
스트레스(A)	-.274	.047	-5.871***	-.504	.104	-4.867***
학생-교사관계(B)	.536	.064	8.359***	-.021	.112	-.189
상호효과(A×B)	.179	.086	2.092*	.007	.003	2.593**
R2 /F(p)	.261/ 32.092***			.429/ 74.279***		

* $p<.05$, ** $p<.01$, *** $p<.001$

반면 한국의 경우 첫째, 먼저 독립변인인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935, t=10.205, p<.001$). 다음으로는 독립변인인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007, t=2.593, p<.01$). 이는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B=-.504, t=4.867, p<.001$)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중국과 한국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괄호밖에 제시된 숫자는 중국, 괄호 안에 제시된 숫자가 한국을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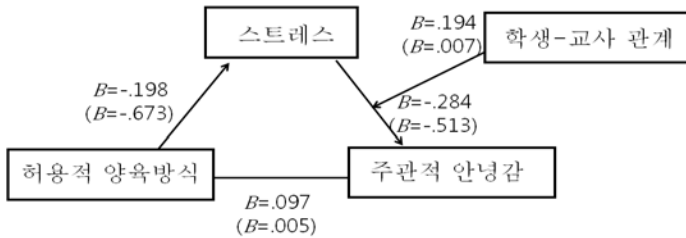
<표 5> 중국과 한국의 허용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인	중국			한국		
	B	SE	t	B	SE	t
종속변인 = 스트레스						
허용적 양육방식	-.198	.049	-4.008***	-.673	.114	-5.925***
R2/ F(p)	.039/ 16.066***			.081/ 35.109***		
종속변인 = 주관적 안녕감						
변인	B	SE	t	B	SE	t
허용적 양육방식	.097	.048	2.029*	.005	.045	.106
스트레스(A)	-.284	.047	-6.110***	-.513	.104	-4.950***
학생-교사관계(B)	.501	.066	7.528***	-.037	.112	-.332
상호효과(A×B)	.194	.086	2.256*	.007	.003	2.576*
R2/ F(p)	.255/ 33.740***			.428/ 73.903***		

*p<.05, ***p<.001

<표 5>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첫째, 먼저 독립변인인 허용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98, t=-4.008, p<.001$). 다음으로는 독립변인인 허용적 양육방식이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97, t=2.029, p<.05$). 또한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501, t=7.528, p<.001$). 또한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194, t=2.256, p<.05$). 이는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B=-.284, t=-6.110, p<.001$)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첫째, 먼저 독립변인인 허용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673, t=-5.925, p<.001$). 다음으로는 독립변인인 허용적 양육방식이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007, t=2.576, p<.05$). 이는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B=-.513, t=-4.950, p<.001$)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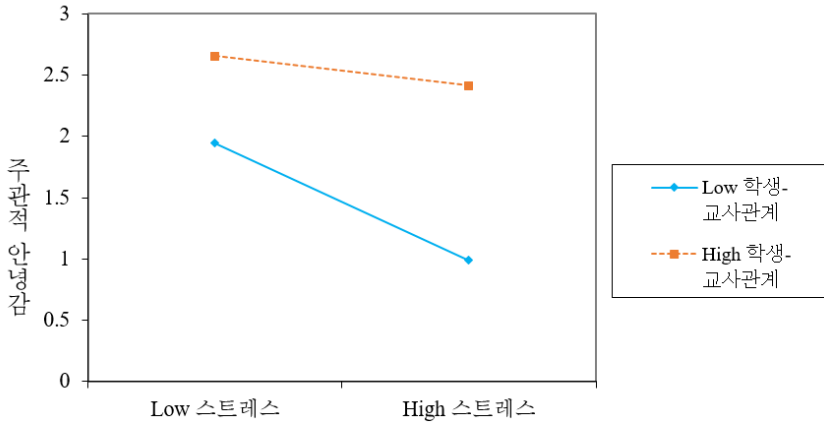


[그림 4] 중국과 한국의 허용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괄호밖에 제시된 숫자는 중국, 괄호 안에 제시된 숫자가 한국을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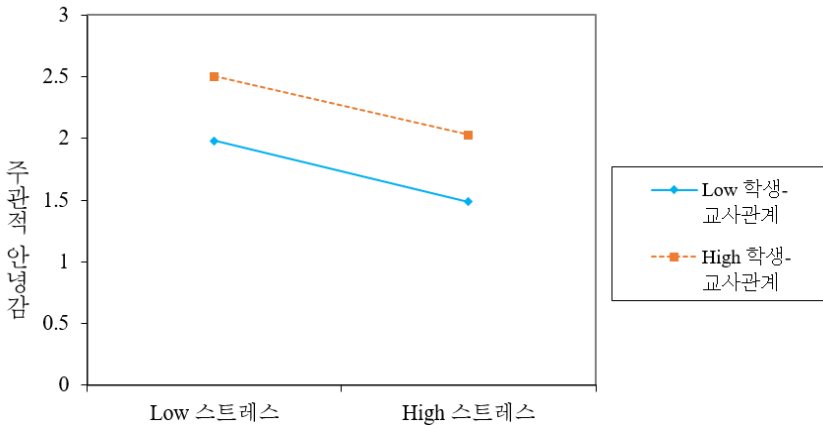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경우,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학생-교사 관계가 95%의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390과-.209로 나타났다. 조건 값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차이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학생-교사 관계가 95%의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278과-.205로 나타났다. 조건 값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경우, 민주적 양육방식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23과 .089,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104와 -.026, 허용적 양육방식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25와 .098로 나타났다. 모든 조건 값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수준에서 그 효과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한국의 경우, 민주적 양육방식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108과 .216,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288와 -.157, 허용적 양육방식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103와 .234로 나타났다. 모든 조건 값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로 모든 수준에서 그 효과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그림 5] 중국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효과



[그림 6] 한국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 선전시와 한국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방식과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과 한국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학생-교사 관계의 차이

첫째, 중국과 한국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학생-교사 관계의 차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국적에 따른 주요변인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 변인에서 중국학생은 한국학생보다 민주적 양육방식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허철수, 2003)에서 중국부모가 한국부모에 비해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준다는 결과와 비슷하다. 또한 중국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에 비해 아동을 더 합리적으로 대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한다는 결과(서안리, 2009)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왕정(2016)은 중국부모의 경우 자녀를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보고 자녀의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인 양육이념을 사용하며 자녀들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민주적인 양육방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반면 한국학생은 중국학생보다 부모의 허용적 양육방식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서안리, 2009)에서 중국 아동에 비해 한국 아동은 어머니가 징벌과 거부를 더 적게 한다고 지각한다는 결과와 비슷하다. 또한 한국학생이 중국학생보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더 보호적이고 허용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선행연구(金潤玉, 2017)와 비슷하다. 서안리(2009)의 연구에서 한국아동은 중국아동과 비교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적게 거부하고 벌을 적게 준다고 지각한다는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민주적, 허용적 양육방식의 차이는 두 국가 사이에 크지 않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었다. 이는 서안리(2009)의 연구에서 확인된 중국 부모가 한국 부모보다 양육에 있어서 더 엄격하고 권위적이라는 결과와 일치하다. 또한 중국학생이 한국학생보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인정을 거절하고 벌을 엄하게 한다고 인식한다는 연구결과(金潤玉, 2017)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부분 가정에서 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게 모든 심혈을 기울이지만 잘못이나 그릇된 점에 대해서는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타일리아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이기숙, 정미라, 김현정, 2008). 따라서 중국 청소년은 부모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해주지만 벌을 할 때는 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국가 사이의 가장 큰 변인의 차이는 스트레스였다. 중국학생은 한국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양과 박인숙(2010)의 연구에서 중국아동이 한국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현재 중국의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형식으로 교육평가를 진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반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일제시험을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중국학생에 비해 학업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면서 가정에서 한 자녀에게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자녀의 학업과 성취에 대한 기대가 크고 교육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ZHANG CHUNXUE, 2014). 중국의 각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의 불균형(傅維利,

1995)에 따라 학생의 가정환경의 차이가 크고 경제적인 차이도 크다. 가정환경의 불균형에 따른 차이는 학생에게 여러 방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중국학생이 한국 학생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생-교사관계 변인에서 중국학생은 한국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국아동은 한국아동보다 교사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유양, 박인숙, 문영숙, 2010). 선행연구(楊繼平, 2005)에서 중국학생은 학년의 변화에 따라 교사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고무격려와 인정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예로부터 뿌리 깊은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교사에 대한 무한한 존중과 신뢰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柴俊靑, 2004). 이에 따라 중국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교사에 대한 기대와 존경심은 감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학생은 교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교사 관계를 한국 학생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중국과 한국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중국과 한국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학생-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양육방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국과 한국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양육방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국의 경우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방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는 오직 중국 학생에게서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학생의 경우 양육방식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국학생에 비해 매우 높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모든 양육방식에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양육방식의 설명력(R²)은 한국학생의 경우가 중국학생에 비해 2배(허용적 양육방식, .081/.039)~5배(권위주의적 양육방식, .207/.041)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중국학생에 비해 주로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반대로 중국학생이 한국학생보다 높았다는 점이다($t=21.10, p<.0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주로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증가된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학생들은 비교적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가 양육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비교

하여 한국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한국학생은 부모의 양육방식 자체가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러한 방식이 스트레스를 증감시키고 그 결과로서 안녕감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 한국학생들이 중국학생에 비해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는 질적연구와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길 기대해 본다.

둘째, 연구모형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스트레스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민주적 양육방식과 허용적 양육방식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반면,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과 이해를 돕는 양육방식은 자녀들의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张志涛, 王敬群, 刘芬, 2012). 자녀는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방식을 접하면서 자아존중감이 강화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지는 허용적 양육방식은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권위주의적 일수록 자녀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중국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이는 주로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t=12.25, p<.01$). 중국 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해 엄격하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경향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廖红, 2015). 다른 양육방식과는 반대로 권위주의적 방식은 자녀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중국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자녀의 요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해주는 양육방식이 보다 필요해 보인다. 한국 역시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으로 인해 부모-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내재화 문제 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이근영, 최수찬 & 공정석, 2011; 최인재, 2010) 부모가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과 한국 모두 스트레스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교사 관계에 의해 조절되었다. 다시 말해, 학생-교사의 관계가 좋을수록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이는 장선희와 이미애(2010)가 교사지지와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간의 상호작용 검증을 통해 교사지지가 정신건강문제를 완화한다는 연구와 유사하다. 중국의 선행연구(杨清, 2016)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자녀가 부모를 민주적이고 통제가 낮은 것으로 지각하면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게 되고,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사지지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이나 불안, 위축행동, 공격성과 관계에 있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성수, 2013)도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밝힌 부모의 양육방식이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약화시키

는 요인으로서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를 동시에 발견하고 국가별 차이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림 5], [그림 6]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교사-학생의 관계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중국학생의 경우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학생의 관계가 좋지 않은 집단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주관적 안녕감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반면 교사-학생의 관계가 좋은 집단의 경우 그 감소 폭은 미미하였다.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과 현저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져도 학생-교사 관계가 이뤄질 때 상황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학생-교사 관계가 어느 정도 경감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모가 민주적이지 않고 권위주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는 높지만, 교사와의 높은 관계를 형성하면 주관적 안녕감을 높게 느낄 수 있다. 부모가 권위주의적으로 양육할 경우 부모와의 직접적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가정환경에 대해 자녀의 요구를 부모가 들어주지 않아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친구관계를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여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고(조주연, 도현심, 2011), 학업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심리적 지지가 낮아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학생 스스로 조절하는 상담기법을 적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학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학생의 어려운 점을 수용할수록, 또한 학생이 교사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할 때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타자로서 교사의 존재를 재조명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학생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어떠한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민주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방식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한다면 3가지 유형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포함시켜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을 제안해 본다. 구조방정식을 사용할 경우 중국과 한국 간 확인된 변인간의 관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다집단 분석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의 경우 교차 타당화를 거친 검사도구가 아닌 점에서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교차타당화를 통해 검사의 타당도가 확보된 검사도구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부모관계, 또래관계,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 연구를 한다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교사 관계라는 외부적인 변인이 부모의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영향을 다루었지만 개인적

인 특성 및 외부적인 사회적 지지, 학교지지, 또래지지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다루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광연, 전제상(2018). 아동이 지각한 주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감사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891-90.
- 김남정, 김영식(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남희, 김종백(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애착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사지지와 학생-교사애착관계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5(4), 763-789.
- 김복인, 이인수(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행복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6), 195-218.
- 김성수(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2), 343-364.
- 김연화(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영은(2009).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및 우정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성서대학교.
- 김영선, 이숙(2014). 모 양육태도 지각과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2), 131-145.
- 김요셉, 김성천, 유서구(2011).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8(3), 103-126.
- 김원정(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
- 김은주(2018). 교권침해 실태와 요인에 대한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7), 167-197.
- 김의연, 박영신, 김의철(2013). 한국, 일본,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지각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인간발달연구**, 20(4), 105-127.
- 김의연, 유효숙(2018). 한국, 일본, 중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관리행동과 내용에 대한 비교연구. **교육문화연구**, 24(1), 193-211.
- 김수희, 이숙(2018).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가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5), 660-673.
- 김정민, 이유리(2010).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3-26.

- 김정옥, 김재호(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 자녀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인식과의 관계. **실과교육연구**, 24(1), 111-132.
- 김종백, 김남희(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교사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697-714.
- 박영숙, 김종우, 이상원(2010).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한국초등교육**, 20(2), 151-171.
- 유양, 박인숙(2010).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비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3(1), 26-34.
- 유양, 박인숙, 문영숙(2010).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한국과 중국 아동의 비교. **아동간호학회**, 16(4), 334-343.
- 왕정(2016). 중국 가정의 사회자본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유아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2016). **2016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 서울: 연세대 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이근영, 최수찬, 공정석(201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연구**, 18(5), 83-107.
- 이기숙, 정미라, 김현정(2008). 한국, 일본, 중국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8(3), 151-171.
-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 이수미(2011). 초등학생이 지각한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은진(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69-84.
- 이현주, 강민희(2008).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 (PAQ) 타당화 및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과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3), 5-31.
- 임세준, 이운영(2018). 초등학교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이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6), 341-350.
- 서안리(2009). 한 중 외동아와 다동아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양육방식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서은국, 구재선(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서종수(2017). 부모애착이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상담 교육연구**, 6(1), 145-165.
- 서현주, 최형아(2017). 중·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모, 또래, 교사 관계의 조절효과. **교육문제연구소**, 63, 51-78.
- 송영이(201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신명덕(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복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신성철, 신연희, 송희원(2018).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교부적응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7(2), 85-97.
- 신원(2007).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진로 포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현균(2009). 아동,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4), 1083-1105.
- 심우엽(201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2(2), 261-277.
- 심우엽(2014). 교육학 이론 및 실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5(2), 1-16.
- 심정희(2015). 한국과 중국의 교육열 특성비교: 한국인의 교육열 재개념화를 위한 시론.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심향순, 여상인(2004). 가정환경과 초등학생의 과학 창의성과의 관계. **과학교육논총**, 17, 107-114.
- 장선희, 이미애(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8), 27-55.
- 정은선, 조한익(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09-227.
- 조주연, 도현심(2011). 부모 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32(2), 15-34.
- 조혜정(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68, 157-184.
- 지선례(2018). 저소득가정 아동의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9(2), 207-219.
- 최인재(2010).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 생각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7(9),

105-130.

- 한미현, 유안진(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4), 49-64.
- 함미영, 김희영, 전미순(2007).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간호 논문집**, 11, 15-21.
- 허지영(2008). 초등학생의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허철수(2003). 한중 부모 양육태도 비교연구.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4(1), 39-72.
- ZHANG CHUNXUE(2004).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 적응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金润玉(2017). 父母教养方式, 自卑与社交焦虑的关系研究: 来自中韩大学生的比较. Master's thesis, 四川师范大学.
- 任木千子(2016). 社会环境对中小学生学习压力的影响研究. Doctoral dissertation, 湖南师范大学.
- 尚晶晶(2017). 心理弹性在学校压力对高中生主观幸福感中的调节作用. **校园心理**, 15(2), 100-103.
- 姜晓文, 姜媛, 田丽, 方平(2018). 青少年压力与主观幸福感的关系: 一个有中介的调节模型. **心理与行为研究**, 16(3), 63-68.
- 郭明佳, 刘儒德, 甄瑞, 牟晓红 & 庄鸿娟(2017). 中学生亲子依恋对主观幸福感的影响: 师生关系及自尊的链式中介作用. **心理与行为研究**, 15(3), 351-358.
- 傅维利(1995). 论区域经济发展的不平衡与欠发达地区的教育抉择. **教育研究**, (4), 39-44.
- 傅俏俏, 叶宝娟, 温忠麟(2012). 压力性生活事件对青少年主观幸福感的影响机制. **心理发展与教育**, 28(5), 516-523.
- 廖红(2015). 父母教养方式对中学生学业压力的影响. **内江师范学院学报**, 12(4), 70-73.
- 杨继平(2005). 3-6 年级小学生师生关系调查研究. **教育理论与实践**, 25(6), 46-49.
- 杨清(2016). 大学生压力与主观幸福感: 心理资本的中介作用及社会支持的调节作用. Master's thesis, 四川师范大学.
- 柴俊青(2004). 中国传统师生关系理念透析.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学报**, (2), 132-136.
- 曾岑莉(2016). 小学高年级学生学业压力调查及对策研究. Master's thesis, 华中师范大学.
- 张志涛, 王敬群, 刘芬(2012). 大学生父母教养方式, 领悟社会支持, 孤独感与主观幸福感的关系. **中国健康心理学杂志**, 20(7), 1080-1083.
- 张筱妤(2015). 父母教养方式对初三学生心理健康的关系的研究. Doctoral dissertation, 贵州师范大学.
- 胡洁, 姬天舒, 冯凤莲(2002). 父母教养方式与大学生总体幸福感的相关研究. **健康心理学杂志**, 10(1), 16-17.

- 罗桃兰(2005). 深圳市小学生心理健康调查研究. Doctoral dissertation, 华中师范大学.
- 邱雯婷, 冯维(2009). 我国近20年来青少年自杀研究述评与展望. *现代预防医学*, 36(11), 2093-2095.
- 钟茜莎(2016). 中学生学业压力, 心理资本与主观幸福感的关系研究. Doctoral dissertation, 湖南科技大学.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1), 43-88.
- Buri, J. R. (1991). 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1), 110-119.
- Hamre, B. K., & Pianta, R. C. (2001). Early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trajectory of children's school outcomes through eighth grade. *Child Development*, 72(2), 625-638.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oggard, L. (2005). *How to be happy*. Boston: Beacon Press.
- Houri, D., Nam, E. W., Choe, E. H., Min, L. Z., & Matsumoto, K. (2012).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 school children: a comparison among Japan, Korea, and China. *Global health promotion*, 19(3), 32-41.
- Howes, C., Hamilton, C. E., & Matheson, C. C. (1994).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eers: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aspects of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5(1), 253-263.
- Kennedy, J. H., & Kennedy, C. E. (2004). Attachment theory: Implications for school psychology. *Psychology in the Schools*, 41(2), 247-259.
- Kim, K. I., Won, H., Liu, X., Liu, P., & Kitanishi, K. (1997). Students' stress in China, Japan and Korea: A trans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3(2), 87-94.
- Lai, C. M., Mak, K. K., Watanabe, H., Jeong, J., Kim, D., Bahar, N., Ramos, M., Chen, S. H., & Cheng, C. (2015). The mediating role of Internet addiction in depression, social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in six Asian countri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Public Health*, 129, 1224-1236.
- Lee, E-Y, Yi, K. J., Walker, G. J., & Spence, J. C. (2017). Preferred leisure type, value orienta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ast Asian Youth. *Leisure Sciences*, 39(4), 355-375.
- Pianta, R. C., Nimetz, S. L., & Bennett, E. (1997). Mother-child relationships,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school outcomes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3), 263–280.

Wei, M., Ku, T-Y., Russel, D. W., Mallinckrodt, B. M., & Liao, K. Y. (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451–462.

* 논문접수 2019년 2월 7일 / 1차 심사 2019년 3월 12일 / 2차 심사 2019년 5월 20일 / 게재승인 2019년 6월 7일

* Wu Linyan: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교육상담 및 심리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E-mail: joan680710@naver.com

* 오인수: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상담자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함.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교육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insoo@ewha.ac.kr

* Li Mingji: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동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교육상담 및 심리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E-mail: limingji@ewhain.net

Abstrac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tudents' Stress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Subjective Well-being*

Wu, Linyan**
Oh, Insoo***
Li, Mingji****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 through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style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and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399 Korean and 400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hinese students perceived higher level of democratic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stress, subjective well-being,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students perceived higher level of permissive parenting style. Second, partial mediation effect of stress was found for Chinese students between parents' parenting style and subjective well-being, while perfect mediation effect of stress was found for the Korean students.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was moderated by student-teacher relationship in both countries. Based on these results, effective intervention was discussed in order to increase students' subjective well-being in terms of their stress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Key words: parenting style, stress,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ubjective well-being, Chinese, Korean

* This article was based on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and it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S1A3A2075274).

** First author,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 Department of Education, Doctoral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